9월 셋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9월 셋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를 준비합니다. 2026년 9월 셋째 주(9월 20일) 주일 오후, 한 주의 피로와 마음의 소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앞에 다시 서게 하소서. 찬양으로 문을 열고, 말씀으로 길을 얻고, 기도로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대표로 기도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 단어만 조금 바꾸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9월 셋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1 찬양의 문을 여는 기도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1)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이 갈라지고 믿음이 흐려질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 오후 찬양 예배가 형식이 아닌 만남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예배의 첫 문을 여는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입술로만 노래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한 마디 한 마디 고백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숨 가쁘게 달려오느라 거칠어진 호흡도,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굳어진 표정도 주님 앞에서 풀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세상 소식과 숫자와 비교가 마음을 붙들어 흔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예배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찬양이 끝난 뒤에도 그 고백이 남아 우리의 하루를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삶의 무게를 지고 온 성도들이 한 찬양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낯선 이에게는 따뜻한 환대가, 지친 이에게는 쉼이, 마음이 식은 이에게는 다시 타오르는 첫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와 연주자와 안내하는 손길 위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끝으로, 이 예배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준비가 부족해도 주님의 은혜는 넉넉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겸손히 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셋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2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기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요한일서 1:9)

자비로우신 주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오니 우리의 속사람을 비추어 주옵소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쌓였고, 작은 유혹 앞에 쉽게 무너졌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주님,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솔직히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 말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날카롭게 반응했고, 가까운 이에게는 무심했으며, 내 편을 만들기 위해 다른 이를 낮추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의 혀가 불이 되어 공동체를 태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제어 아래에서 온유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부터는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생각으로 지은 죄도 돌이킵니다. 남의 형편을 쉽게 판단했고, 보이지 않는 수고를 가볍게 여겼으며, 나의 욕심을 “필요”라 포장했습니다. 주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새롭게 하셔서, 교만이 자리 잡을 틈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온전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 했던 무거운 짐도 내려놓게 하옵소서.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알면서도 미루었고, 해야 할 선을 놓쳤으며, 기도 대신 걱정으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다시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회개가 자책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의 담대함으로 다시 걷게 하옵소서. 멈춰 섰던 자리에서 다시 한 걸음 옮기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끗해진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숨겨둔 상처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셋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3 말씀에 순종을 세우는 기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5)

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귀만 열리지 않게 하시고 삶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익숙한 말씀 앞에서도 쉽게 무뎌지고,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순종을 미뤄 왔습니다. 주님, 오늘은 다르게 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용기를 주소서. 가정과 일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9월의 바람이 선선해질수록 해야 할 일은 더 쌓이고, 사람들의 기대도 커집니다. 학업을 시작한 다음세대, 새 배치와 변화 속에 적응하는 직장인, 돌봄의 책임을 지는 성도들의 어깨 위에 주님의 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한마디 말씀이 하루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6년 9월 하순에는 추석 연휴(9월 24일~27일)가 이어집니다. 가족 모임이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관계의 긴장과 피로가 커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태도에 사랑을 더해 주시고, 화해가 필요한 자리에는 먼저 손 내밀 용기를 주옵소서. 멀리 떨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홀로 보내야 하는 이들에게는 교회의 따뜻한 동행을 허락하옵소서.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불평을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예배당에서만 은혜롭고 집에서는 거칠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일에는 뜨겁고 월요일에는 차가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순종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우리 가정의 공기를 바꾸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순종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길을 잃어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셋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4 교회와 나라를 품는 기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9)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개인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서야 할 때, 우리의 시선을 안락함에만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자랑이 아니라 섬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담대함과 눈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신앙의 연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 세워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대가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세대가 교회를 짐이 아니라 꿈으로 보게 하옵소서. 또한 새가족들이 예배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래 믿은 성도들은 초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소비하지 않고 세워 주는 관계가 되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모임이 복음의 향기를 잃지 않게 지켜 주소서.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는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이 안전하게 쉬었다 다시 걸어 나가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의 작은 이기심과 파벌의 씨앗을 뽑아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예배 후에 이어지는 교제 시간에도 성령의 기쁨을 주셔서, 말 한마디에도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지켜 주소서. 이 나라와 도시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한 경제와 일자리의 걱정, 사회의 갈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들 앞에서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주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책임을 더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더 이상 밀려나지 않게 하시며,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고,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땀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회복을, 마음의 병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이들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 나라들과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 잠드는 아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난민과 이주민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뉴스로만 듣고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금식과 작은 헌금이라도 사랑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낙심 대신 소망을 붙들고, 비난 대신 중보를 선택하게 하시며, 작은 순종으로 큰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셋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5 파송과 한 주의 삶을 위한 기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14)

사랑의 주님, 예배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쉼표로 보내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들은 이유가 내 기분을 달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함임을 다시 새깁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파송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각 사람의 자리로 돌아갈 때 주님의 동행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믿음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며, 학교에서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배우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진 작은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말 한마디, 양보 한 번, 기도 한 번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처음 온 이들, 오랜만에 돌아온 이들, 마음이 지쳐 잠시 앉아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귀하게 받아 주시고, 믿음의 첫걸음을 딛는 이들에게는 확신을,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붙드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판단이 아니라 환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치유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에도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문제가 커 보여도 먼저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해결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찬양 한 곡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 한 구절로 방향을 재확인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든 그 길에서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불필요한 말로 관계를 어둡게 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친절로 어둠을 밀어내게 하시며, 지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길 잃은 사람에게는 방향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셋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6 다음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신명기 6:7)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첫 교회를 주시고 다음세대를 맡기셨으니 감사합니다. 9월은 새 학기와 새 사역이 자리 잡는 때이지만, 동시에 마음의 부담이 커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특별히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가정이 말로만 세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부담이 아니라 등불이 되게 하시고, 잔소리보다 본이 앞서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대화가 다시 열리게 하시며, 서로를 탓하기보다 함께 무릎 꿇는 시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압박과 진로의 불안으로 눌린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과 경쟁 속에서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SNS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친구 관계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선생님과 동료들과의 만남 속에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부, 찬양팀과 봉사팀에 성령의 생기를 부어 주셔서, 억지로 끌려오는 모임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의 어른들을 세워 주옵소서. 다음세대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답을 강요하기보다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세대의 언어가 달라도 사랑으로 통역하게 하시며, “내 때는 말이야”로 벽을 쌓지 않게 하시고, “함께 가자”로 길을 내게 하옵소서. 교사와 멘토들의 수고가 낙심으로 꺾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드린 찬양 예배가 가정의 식탁과 아이들의 책상, 부모의 퇴근길과 어르신의 잠자리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켜 주시니 우리가 안심하고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